

그냥 묵묵히 일체를 나와 같이 보는 마음이어야

21면에서 계속

까비 왜가지고선 눈물을 흘리면서 자꾸 뺨 앞에 와서 악을 울리는 거야. 그런데 이 뺨은 그 사연을 몰라. 두꺼비가 계속 뺨을 놀리고 있는데 어느 스님이 텃밭터덜 오시거든. 오시니까 거기서 터억 소리가 나는 거라. 이 뺨이 그 소리를 들어, 인제, 두꺼비도 듣고 뺨도 들어.

“너희 둘 잘 만났다.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이렇게 만난 것도 과거로부터의 인연이니까. 너희들은 약행을 너무 저질러서 만남도 이러한 것이니까. 저 두꺼비도 본심은 착한데 너의 말을 듣고 일을 저질렀고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한 거니까 네놈이 더 잘못했어. 너는 나를 한 번 살려준 것밖에 선행한 게 없어. 그러니 그렇게 해서 이 두꺼비...” 그 때 그런 살법을 주옥 했어. 그러니까 그 뺨이 우는 거라. 울면서 두꺼비한테 하는 소리야. “만약에 내가 너를 잡아먹으면 내 몸은 그냥 버리고 나는 빠져나갈 수 있잖아. 너는 내 몸에 의해서 몸이 두꺼비로 다 화(化)하게 되니 너는 두꺼비를 또 벗어날 수가 없는 일이다.” 그러면서 “나한테 이르지 말라.” 하니까, 그 스님이 하는 소리가 이렇게 말을 했지, 뺨더러.

“네가 저지른 거니까 빨리 두꺼비를 삼켜라. 그러면 내가 인도를 할 테니 요 들관만 내려가면 안 자가 있는데 거기 큰 숲 곁에놓은 데 그 아궁이에 오늘 밤에 들어가 있으면 내일 아침에는 거기다가 불을 지필 테니 절대로 뜨겁단 말 하지 말고 아예 그냥 몽땅 타 없애라. 던져라. 네 몸뚱이를 하나 던지면 두꺼비도 살고 너도 사느니라. 그래서 인도환생을 하되 그때는 인간으로 태어나 나쁘게 살았으니까 지금부터라도 잘 살아라. 십만 년 만에 인간으로 도로 갖다놔오니 이제부터는 네가 하기 답했다. 나는 그 은혜로 인해서 절을 짓고 내 목숨이 살고, 내 목숨이 살았기에 도를 이루었고, 도를 이루었기에 네 울음소리를 들었느니라. 그러니 그렇게 알고 몸을 던지는 것이 네가 빠져나갈 길이지니라.” 그러거든.

그래서 뺨은 두꺼비를 냉큼 집어 삼키고서는 스님을 따라가는 거야. 따라가서는 다른 사람 몰래 아궁이 속으로 들어갔지. 아궁이 속으로 들어가서 눈을 깜빡깜빡거리고 가만히 있으니까 몸이 갈갈이 찢기는 것 같은 말이야. 두꺼비는 독이 있어서 먹으면 그냥 죽어서 그게 빠 마디마디다. 즉 말하자면 씹는 대로 두꺼비가 돼요. 그 독이 퍼지니까 얼마나 아픈지 비포곤 그냥 있어도 소리도 내지 못하고 그러고 있는데 다음날 아침 어떤 스님이 와서 불을 지피거든. 불을 지피니 얼마나 죽겠느냐 말이야. 그러나 이 고비를 넘기지 못하면 인도환생을 못 한다는 말이 그냥 꼭 잡고 그 고비를 넘겨서 인도환생을 했대요. 그 뒤는 뭐 또 자기 할 뜻이지만 말이야, 도로 갖다 놔요.

그래서 우리의 이 몸속이라는 자체가, 천상인

간도 벗어나야 된다.’ 하는 소리는 뭐냐 하면 사왕 천(四王天)의 천상 인간이 된다 하더라도 이것은 벗어나야 된다. 왜냐하면 선이라고 해서 선은 짓되 악은 놔라 이라는 게 아닙니다. 선으로서 선을 짓게 되면 선으로 가다가 악을 또 지을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미(迷)해질 수가 있고 길지가 못해. 또한 집은 선과 악은 다를 수가 없어. 또한 집은 영령들과 인간 산 사람들과는 또 다를 수가 없어.

그러니 모두 놔라 이거예요. 모두 모두 맡겨 놔라 이거야. 놓으니까 무슨 놓을 게 있어서 놓으라는 게 아니라 그대로 믿고 거기에서밖에는 해결 못하고, 거기에서밖에는 감사함을 주지 못하고, 거기에서밖에는 나를 끌고 다니지 못하고, 거기에서밖에는 지혜로운 마음이 생겨서 모두 풀안으로 안을 수도 없고 지혜롭게 해나갈 수 없다. 거기밖에는.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은 거기밖에 없

(化身)입니다. 여기는 이것이 육신이지만, 그 모습들은 화신으로서 모두 보현보살(普賢菩薩)로 화해서 영계들이나 산 사람들이나 다 보호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화(化)해서 지속 왕래를 해보세요. 얼마나 멋있는가? 그런 일이 어디 있을까? 이러죠. 그런 일이 왜 없습니까? 빛보다 더 빨리 왕래하는데. 그러니 여러분은 기복으로만 만날 빌고 “아이고, 나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제발 좀 이리저 말고, 죽으면 죽고 살면 살지 어차피 한번 죽을 거 뭐 또 죽을까봐 그렇게 살려달라고 애를 쓰니까?

나는 이날까지 나 살려달라고 빌어본 예가 없어요. 항상 그전에는 아무 생각도 없이 오직 팔랑 개비대만 쥐고 다녔다고. 그게 돌아가든 안 돌아가든 나하고는 상관없이. 그 대만 쥐고 다녔으니까. 그러니까 우선 내가 대를 쥐면 나한테도 바람도 있지. 지수화풍이 다 내 안에 있지 않습니까?

자기를 자기가 의심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물려서지 말아야 합니다!

다 하고 믿고 나가라 이거지, 그것이 놓는 거라고. 그것이 놓는 거 때문에 한 번 놓고 두 번 놓고 자꾸자꾸 놓아 들어가면 업보로 문쳐진 이 중생들이 다 그냥 보살로 화해 버려. 그러니 얼마나 편안하니 좋습니까. 거기에서 호법신(護法神)도 생기고, 수호신(守護神)도 생기고, 화신(化身)도 생기고, 법신(法身)도 생기고 모두가 수효가 없이 생기니 얼마나 마음이 편안하고 좋으냐고요. 가정이 화목해지고 하는 일마다 귀인이 생기고 밝이 넓어지고 속의 모든 두려움이 없어져 뚜렷해지고 이렇게 된단 말이예요. 그러니 이 공부의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는 문제죠.

그냥 묵묵히 일체를 나와 같이 보는 마음으로만 할 수 있다면, 그건 바로 실현이 되는 거죠. 우리가 공부, 공부 하지만 사실 공부라는 이름도 붙이지 말고, 지금 바깥에서 벌어지는 참혹한 일들, 그건 불쌍한 게 아니라 애처롭습니다. 여러분은 산 사람, 산 물질만 봐도 애처로운 일이 많은데, 죽은 영령들이 부모 자식을 위해서 자기를 던지는 마음, 애처롭게 끌고 다니는 그 마음, 세상에 그렇게 애처로운 수가 없습니다. 인연이 뭐고 사랑이 뭐기에, 자식이 뭐고 부모가 뭐기에, 남편이 뭐고 아내가 뭐기에 그렇게들 인연줄이 질기고 질겨서 그걸 놓지 못해 붙들고, 애처롭게 피를 흘리니까.

그러니 사람 사람이 누구나가 몰라서 그렇지 여기서도 살고 있고 저 별상에도 살고 있다. 여기 모습대로 거기도 그 모습을 가지고 사는데 그건 화신

까! 그러니 그건 저절로 돌아갈 거라고. 나는 그대만 붙들고 다녔기 때문에 내 육신이 고통을 받든지 안 받든지, 죽든지 살든지 상관이 안 했으니까 고통이 없었다 이 소리예요.

우리로 악과 선을 다 놓을 수 있다면 또는 집안에서 병 문제가 생겨도 스스로 해결할 수 있죠. 어떤 사람이 엇그저께 이렇게 말하더군요. “스님, 지금 간암으로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는데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같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가 병원이냐고, 의사가 있는냐고 그러니까, “지난번 여섯달 전에도 우린 그렇게 해서 스님한테 말씀을 했더니 스님이...” 난 모르는 일인데 하니까, 스님이 “아휴, 나야야지. 자식들이 어찌나 나야야지.” 했대요. 글썽, 그랬더니 나왔대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게 문제라고요. 나한테 물어서 되는 줄 아니 이걸 어떻게 좋아요? 물론 ‘나무때기 시집을 보내느니 내가 가지.’ 할 때가 없는 건 아니예요. 그러나 내가 수해를 그렇게 원주에서 겪어왔기 때문에 병만 고쳐주는 게 여러분을 살리는 길이 아니야. 그건 잠시 잠깐 병이 나았으니까 잘 살겠지만 영원토록 끊임없는 이 진리 속에서 여러분은 그 업보를 스스로 녹이지 않는다면 항상 그런 게 닥쳐오니까 말이예요. 잠시 잠깐 그렇게 해줬다고 나한테 고맙다고 그런 소리도 듣기 싫다고. 응! 여러분을 이끌어서 여러분이 진짜로 어딜 가나 하다가 못돼 돼지 새끼, 벌레 새끼 하나라도 건질 수 있는 능력을 기르라는 거지,



그림 · 최주현

누가 나를 믿으셨습니까? 나는 한 번도 그런 말한 예가 없어요. 자기 주인공, 즉 자기를 믿으라고 했지. 그저 생각이 없는 짐승이나 생각이 있는 짐승이나, 생각이 없는 영계나 생각이 있는 영계나 그 참혹하고 애처로운 영령들, 그 애처롭고 참혹한 우리 산 놈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또 영령이라고 하는 것은 도심이 아닙니다. 그건 아서야 됩니다. 영, 혼, 낮 이렇게 부르면. 이런 거는 업으로서 많이 살던 습이 한테 문쳐진 그 덩어리야. 어떠한 업식이야, 그 업식이 영령들이야, 그게 다. 그러니 중생이라 이 소리지. 그 참혹한 꼴을 보세요. 내용적인 것은 다 말을 못 하지만 그거 한 가지만 보더라도 사생(四生)의 종류, 또 웅도대로 그러한 문제가 덩달아 일어나고 있으니 사람만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사람은 갖추어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잘못된

건가, 저게 잘못된 건가, 이렇게 보기도 하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업식만 가지고 있는 그런 중생이라면 이다음에 죽어서 사람으로만 태어나라는 보장을 누가 하며, 또는 사람 속에서도 업식이 문쳐진 것이 사람인데, 사람이 자체가 바로 중생들의 소굴이거든. 여기에서도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될 참인데 사람도 못 된다면 부처 될 일은 까마득하지 않느냐 이거야. 부처의 뜻을 알려면, 그러니 누가 보장을 못합니다.

(다음 호에 계속)

※위 법문은 1988년 12월 18일 정거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나 한마음선원에서 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진정한 은사스님처럼 기초와 범패소리를 잘 닦아 주는 교육장소 한국불교전통의식대학 2007년 제9기 추가통신생 모집

- ◆ 지원자격 : 스님, 포교사, 교임법사, 각 종단을 초월하여 절을 이어갈 후계자 (유발자도 가능)
- ◆ 과 목 : 범패 상주권공의식, 각배의식, 교양과목, 기초철학
 - 안채비 : 각종불공의식, 49재의식, 천도재, 신중작법의식, 각종 소, 낭독하는 법
 - 겹채비 : 바라춤, 도량계작법, 다계작법(나비춤), 사물 다루는법, 화청(회심곡), 지옥개춤
- ◆ 과 정 : 2년(4학기) ◆ 수 강 료 : 1학기 6개월 70만원(각 학기당 동일) (비디오 교재 별도)
 - ※ 비디오, 테이프, 46가지 DVD까지, 비치됨. 교재는 학교에 비치
-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학교에 비치), 반명함판 사진 3장, 주민등록등본 2통
- ◆ 입 학 식 : 2007년 3월 14일 수요일 오후 2시 30분
- ◆ 통신생 출석교육 : 매월 둘째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 다음 일요일 12까지
- ◆ 상차 각배교육 : 매주 화요일 오후 3시
- ◆ 전화번호 : 062)362-8604 / 011-624-8604 / Fax 062)372-8604
- ◆ 주 소 :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2동 759-14 (우 502-242)
- ◆ 학 장 : 혜공스님(중요무형문화재 제 50호 이수평가자)

한국불교의식대학 범패교육기간

2006년 12월 28일 - 12월 31일 : 3박4일

- 교육시간 : 오전 9시부터 - 오후 6시까지 (오전시간 강의, 오후시간 실기교육 위주)
 - 12월 28일 오후 2시 : 입학식 후 시련절차 실기, 대령관육 보소정전연, 화청(회심곡), 원아계교육
 - 저녁시간 : 사물 다루는 법 - 북, 태령, 목탁, 요령
 - 12월 29일 : 점안의식, 가사이운식(짓소리 녹음), 화청(회심곡), 낙성식하는 법, 범종불사 의식하는 법
 - 12월 30일 : 상주권공, 지장불공, 관음시식, 상용영반, 화청(회심곡), 상축하는 법, 창촌의식 하는법, 부도 재막식 하는법, 삼재기도 하는법.
 - 12월 31일 : 정월유랑불공 및 방생의식 법, 소장불, 39위 신중작법, 종사령반 종사관육, 큰불사시 관음예문하는 법.
- 준비물 : 가사장삼, 필기도구, 녹음기 ● 숙식제공포함 교육비 : 40만원

중요무형문화재 혜공스님의 영산의식 시리즈 (비디오, DVD)

한국불교전통의식대학 학장이신 혜공 스님께서 불교의식을 비디오와 컴퓨터 등에서 볼 수 있는 DVD를 따라하기 쉽게 학습용으로 촬영, 아래와 같이 제작출시 하였고 이에 필요한 제품이 있으면 주문바랍니다.

아 래

- 1.대령/관육 2.상주권공 지장불교의식 3.상용영반 4.회심곡(화청)1 5.회심곡(화청)2 6.구병시식 7.관음시식 8.점안의식 9.방생의식 10.사물 다루는 법 11.안택 12.시다림 13.산신불공 14.미타불공 15.신중불공 16.관음불공 17.지장불공 18.삼대화상증명불공 19.종사관육 20.종사령반 21.가사불사의식 22.신중작법39위 23.간단한 신중작법 24.전통조석예불 25.천수경/장엄염불 26.상주권공/각배/영산염불 27.사시상단불공 28.작법무(복청계전수) 29.작법무(시방찬소리도량계) 30.작법무(육권만다라선송다계작법) 31.작법무(향수나열사다라니) 32.삼보통칭 33.아침저녁중성 34.향수해례예불 35.혼자서 하는 민관육(간단한 관육) 36.생일불공 37.상주권공49제의식1 38.상주권공49제의식2 39.상주권공49제의식3 40.상주권공49제의식4 41.제사불공 42.삼신이운 43.혼자서 하는 간단한 49제의식1 44.혼자서 하는 간단한 49제의식2 45.화엄시식 46.약사여래불공 47.교재 2권 100,000원

[비디오 각 25,000원 / DVD 각 30,000원]
[농협계좌 641010-56-000296(노현숙)]

◆제품구입처 : 중무소 062)362-8604 / 혜공 스님 011-624-8604

한국불교전통의식대학 학장 혜공 스님